

행사를 비추는 문화도시 밀양



이책은 2019년 밀양시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 제작되었습니다.

행사를 비추는 문화도시 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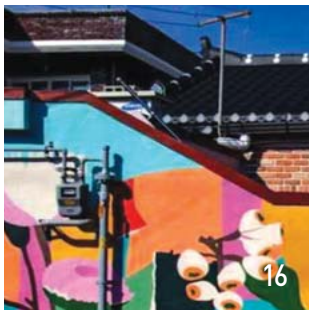




08



11



16

문화리미양
Culture & Miryang
Magazine



14



59



59



06



31



60



10

햇살을 비추는 문화도시 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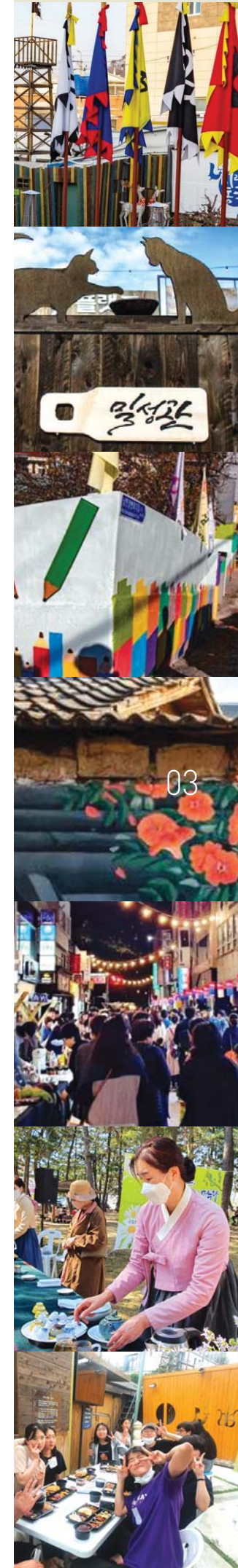
CONTENTS

- 04 Cover Story 1 - 밀양문화의 태동, 미리미동국(彌離彌凍國)
- 06 Cover Story 2 - 따뜻한 햇살로 생성된 밀양의 농경문화
- 08 Cover Story 3 - 밀양아리랑과 햇살 문화도시
- 10 Issue & Spot 1 - 진장문화예술플랫폼, 미리미동국
- 20 Issue & Spot 2 - 시민문화 공유공간, 청학마실
- 24 Issue & Spot 3 - 내일동상가거리 시민문화페스타
- 28 특별기획 1 - 밀양다움의 문화도시
- 31 특별기획 2 - 밀양다움의 문화도시 콘텐츠 방향
- 34 문화인을 만나다 - 손정태 밀양문화원장
- 36 문화단체를 만나다 - 놀이땀 협동조합
- 39 우수 로컬그룹 소개 - 밀아클(밀양아줌마클럽)
- 40 로컬문화기획가 초대 - 박은주(청년작가회 기획가)
- 42 문화 아젠다(Culture Agenda)
문화도시 거버넌스 “협력과 소통의 문화도시를 만들자”
- 46 특별취재 - 아리랑 도시 밀양 문화도시를 꿈꾸다.1~5편 (밀양신문)
- 56 2020 밀양시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 성과(사진첩)



비온후 밀양 (Be On Who 密陽)
한차례 비가 쏟아진 뒤, 땅이 더 다져지듯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밀양시민들은
매번 더 단단한 공동체를 이룬다.
비 내린후 햇벌이 들 듯 밀양을
따뜻하게 비추는 문화의 햇살을 기대해 본다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처 밀양시문화도시센터 / 055)355-0306
제작 다비드커뮤니케이션즈 / 055)352-4530



03



04 COVER SRORY-1

밀양 땅에 최초로 불려진

미리미동국[彌離洞爾凍國]

서기 3세기경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魏書 東夷傳)』에 기록에 의하면 미리미동국은 삼한시대(三韓時代) 변한 12국 중 하나였다.
 밀양의 최초의 이름인 미리미동국(彌離洞爾凍國) 이어! 가야, 신라 등 주위 강대국들에게 애워 싸여 힘겹게 독자적 문명을 꽃 피워 왔던 곳, 밀양 땅에 다시 뿌리내려 찬란한 문화의 재생으로 지역을 꽃피우리라!

밀양은 예로부터 기름진 들판과 따뜻한 햇빛으로 농경문화가 발달되어 왔다. 고을과 고을, 들판과 들판을 이어주는 하천들이 모여 강을 이루어 곡식을 재배하고, 산과 들에서 채집을 통해 먹거리가 풍부해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족사회를 형성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분명 이 땅에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다. 풍부한 철광석으로 철기 농기구를 만들어 농경문화를 꽃피우고, 철기 무기로 외세의 침략에 당당히 맞서 공동체를 지키고 삶의 영위에 나갈 수 있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밀양 땅에 최초로 불려진 미리미동국(彌離洞爾凍國)이다.

지난 2004년에 개관한 종합 스포츠 센터인 미리별관 조성시 발굴된 미리미동국시대 유물인 청동거울, 전사포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굽다리 항아리, 지배층의 장신구인 유리구슬 외에도 춘화리, 제대리 등지에서 발굴된 수많은 삼한시대 토기와 철제 무기류 등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철광석과 관계된 지명과 마을들, 수많은 산성들도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소국은 변한 연맹체의 일원으로서, 맹주국과 여러 가지 형태의 결속 관계를 맺으며 토착적인 세력 기반을 가지고 3세기 이후까지 개별적인 성장을 지속하였다.



약BC 300~기원후 300년(미리미동국), 교동, 춘하리, 제대리 출토 유물



BC 300~기원후 300년, 제대리 9호무덤(유리구슬), 교동 17호 무덤(청동거울)

당시의 중국 상고음(上古音)에 따라 표기한 이들 소국들의 이름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한자음에 가깝다. 미리미동국의 미리(彌離는 우리말 ‘미리’ · ‘말’의 한자 표기이다.《삼국지》 위서 동이전 진한조에 나타난 미동(彌凍)이라고 붙여진 나라는 난미리미동국(難離彌爾凍國) ·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 古自國) 등이 있다. ‘미동’은 앞에서 말한 ‘ · 부리’ 등과 같이 ‘나라’라는 뜻을 알 수 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미리미동국의 미리(彌離는 누에, 용를 뜻하는 우리말 ‘미리’ · ‘말’의 한자 표기이며, ‘미동’은 물둑(水堤, 불(火), 뿌리(根)의 뜻이다.

《삼국사기》의 지리지에 따르면 “밀성군(密城郡)은 본시 추화군(推火郡)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지금도 그대로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추화는 ‘밀불’ · ‘밀’의 한자 표기이다. ‘불’ · ‘은 벌(伐) · 불(弗) · 부리(夫里) · 비리(卑離) 등으로도 표기되어 평야 · 도읍 · 나라 등을 뜻한다. 고려 때 밀주(密州)과 밀성(密城)으로 다시 밀양(密陽)으로 불리어진 곳이다. 따뜻한 양의 기운이 움틀 되는 곳, 외세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펼쳐온 이유이기도 하다.

밀양 땅에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독자적 문화의 꽃을 피운 미리미동국!



미리(누에, 용)를 상징하는 상형문자



불(지배세력)을 상징하는 상형문자

미리미동국은 철이 풍부해 철제 농기구로 벼농사를 많이 지었으며 땅이 기름져 마을 심어 벼를 짜고,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쳐 비단도 지었다. 이렇듯 밀양 땅에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외세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따뜻한 양의 기운이 가득한 곳 밀양! 그 시대 토착 문화인 불(火)과 삶의 문화인 누에를 표현한 상형문자가 다시 밀양 땅에 뿌리내려 찬란한 문화를 재생시키리라 기대한다.



COVER SRORY-2

따뜻한 햇살로 생성된

밀양의 농경문화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 중 하나로 전북 김제 벽골제, 충북 제천 의림지와 함께 밀양 수산제가 있다. 지난 1986년에 수문을 비롯한 여러 흔적이 발견됐고, 2017년부터 밀양시가 본격적으로 정비복원사업을 시작해 마침내 올해 '수산제 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힐링공간이자 탐방 공간으로 완공했다.

수산제의 기록

수산제는 경남 밀양에 있었던 관개용 저수지로서 삼한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추측된다. 그 이후 수산제에 대한 여러 역사서를 보면 후대에도 여러 번 제방을 고쳐 쌓은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곳의 제방은 낙동강의 지류인 용진강이 범람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 양수와 배수를 위해 수산리 산 524-1번지 부근 자연암반 밑으로 수문을 내었는데 그 수문의 흔적이 흙 속에 묻힌 채 지금도 남아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東夷傳)에 벼농사를 위주로 한 이러한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저수지는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추측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밀양도호부(密陽都護府) 고적조의 기록을 보면 고려 말에 김방경(金方慶)이 제방을 쌓고 관개를 하여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미를 비축했다는 전설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제방의 길이가 728보이고 당시에 이미 제방이 무너졌지만 고쳐 쌓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15세기 중엽에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점필재집 佔畢齋集》에서는 1467년(세조 13)에 체찰사 조석문(曹錫文)이 밀양·창녕·청도·창원·대구·현풍·영산·양산·김해 등 9개 고을에서 장정을 동원하여 제방을 다시 수축하였다고 한다. 1463년에 제방을 모으고 국둔전(國屯田)으로 만들었다가 200결(結)이나 되는 경작지의 반은 평민들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지금은 없어진 봉선사(奉先寺: 밀양시 하남을 대사리 뒷산 중턱에 '절터골'이라고 불리던 곳에 있었던 큰 절)에 주었다가 성종 때 다시 환속시켰다고 한다. 이곳의 제방은 낙동강의 지류인 용진강(龍津江: 지역민들은 '한강'이라고 부르고 있음)물이 국둔전으로 범람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 그리고 양수와 배수를 위하여 수산리 524-1번지 부근 자연암반 밑으로 수문을 내었는데, 그 수문의 흔적이 흙 속에 묻힌 채 지금도 남아 있다. 수산제 주위 양동리·귀명리·동촌마을의 산등성이에서는 지석묘(支石墓)나 석곽고분(石廓古墳)을 비롯하여 방대한 양의 조개무덤[貝塚]이 발견되고 있으며 삼한시대 지배층이 소유한 유라구슬 등도 출토되어 미리미동국의 배후지역으로 주목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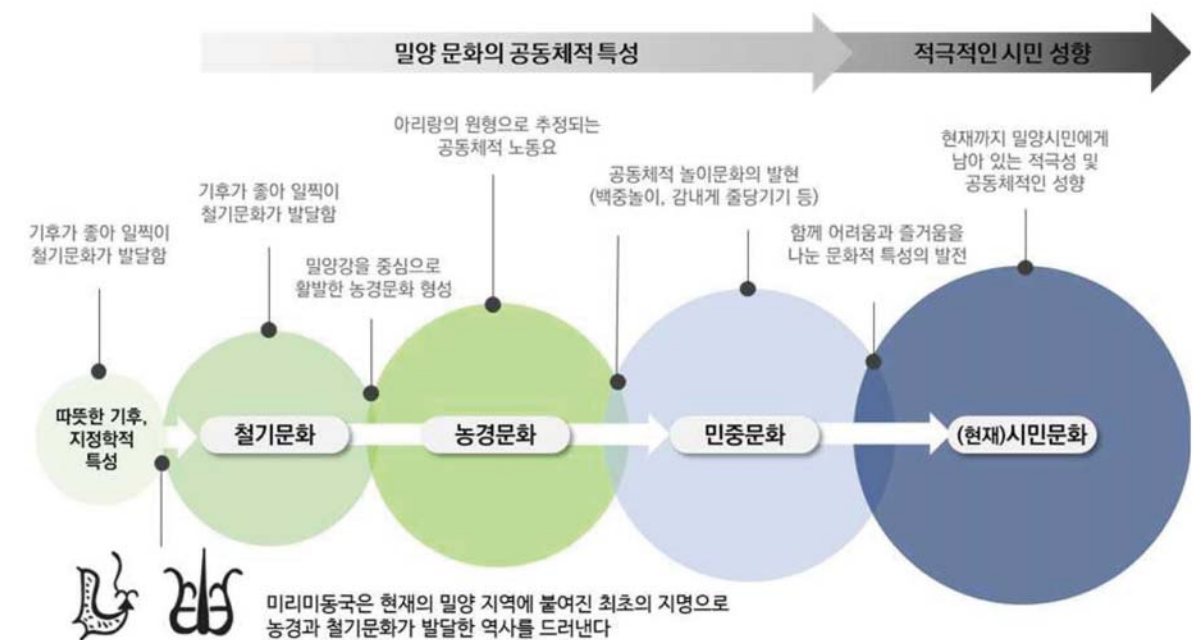
농경문화의 발달

한자로 표기된 밀양은 풀이해보면, 뽕(密)과 햇(陽)으로 햇볕이 뽕뽕한 마을로 읽힌다. 지명의 한자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밀양은 예로부터 따뜻한 기후로 일찍부터 나라가 형성되고 융성해지기 매우 적합한 조건이었다.

이러한 밀양지역에 최초로 등장한 국가는 '미리미동국'으로 철기문화가 발달했으며, 우수한 철기구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밀양강을 중심으로 활발한 농경문화가 형성되었다. 농경문화에서 서로 협동하며 상호교류를 중요시했으며, 공동체는 단순 행정단위가 아니라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공동체의 노동력은 곧 생산으로 직결되었기에 이러한 노동과 생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리랑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노동요 및 백중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등 놀이 문화가 발현되었다. 이는 공동체 내의 유대를 강화하고 결속을 높이는 구실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적 생활양식은 생산을 위해서 뿐 아니라 외부의 침입, 질병 등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밀양은 일찍이 농경문화가 발달하며 공동체적 삶이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면서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성이 중시되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밀양시민들의 성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농경활동을 함께하며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 문화적 특성이 발전하여 놀이문화로 남아 있으며, 현재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경문화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전승되고 있으며, 전통놀이 문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다수 존재하며 주민들에게 향유되고 있다. 밀양은 이러한 놀이와 축제 결합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고 활달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동체 시민문화형성과정





08

COVER SRORY-3

햇살 담은

밀양아리랑

밀양은 예로부터 뽕뽕할 밀(密)과 햇볕 양(陽)으로 햇볕이 뽕뽕한 고을로 알려졌다. 지명의 한 자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밀양은 예로부터 따뜻한 기후로 일찍부터 농경문화가 발달되었고, 밀양 아리랑은 산과 들·밭에서 부르는, 혹은 집 안에서 부르는 ‘놀이노래’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밀양아리랑은 밀양사람들에게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 삶의 회복을 표현하고 있다.

밀양아리랑은 밀양문화예술의 뿌리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찬란하게 꽃피웠던 밀양문화의 근간(根幹)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했던 노래로 우리들의 삶에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되어준 소리였으며 민족이 위기에 처한 시대에 밀양아리랑은 민족적 동질성을 지탱하는 소리였다. 거시적으로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하였으며, 그보다 좀 작은 규모의 지역공동체이며 이익공동체의 독자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런 밀양아리랑은 분명히 공동체의 휘장(徽章) 내지 민중의 휘장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밀양아리랑은 그 기층구조가 메나리나 정자소리와 마찬가지로 밭과 논, 그리고 물이며 산에서 부른 ‘일노래’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매우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밀양아리랑은 일차적으로 토속소리다. 구술과 암기에 의한 전승, 자연적 습득 같은 민속성 외에 지역공동체의 소산이라는 민족성을 가지게 된다. 일찍이 햇살이 좋은 곳에서 농경문화를 꽃 피웠던 밀양인들의 함께 사는 삶의 문화를 표현한 사회공동체의 문화적 독자성이 강하게 밀양아리랑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대표가사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 동지산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차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토속가사

남의 집 서방님은 가마를 타는데 / 우리 집 저문다는 콩밭골만 탄다
시어머니 죽고 나니 방 널러 좋고 / 보리방아 물 부어 놓으니 생각이 난다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 만당이 없어놓고 만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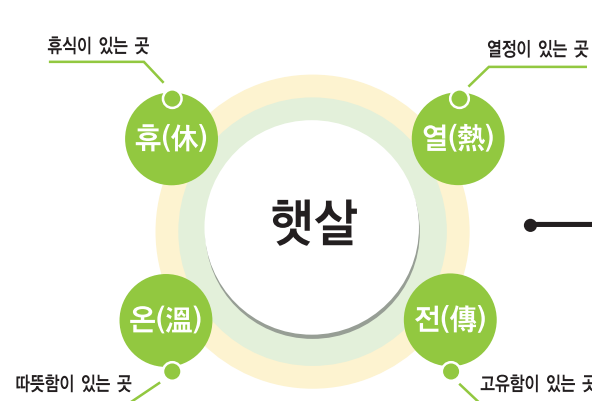
햇살담은 밀양아리랑

따뜻한 햇살의 양지 바른곳, 밀양. 미리미동국으로부터 시작된 밀양은 철기문명으로 농경문화를 꽃피워왔다. 옛 밀양사람들은 풍요로움속에서 삶을 영위하여 함께 살아간다는 진리를 일찍 터득하였을 것이다. 햇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밀양아리랑이 시민들에게 주는 가치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햇살이 주는 따뜻함과 휴식, 고유함과 열정이 밀양아리랑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었던 삶의 회복과 역동, 참여의 가치와 고유성이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 남아 있다. 밀양아리랑가사에서도 햇살의 의미를 담고 있다.

- * 회복(휴)- 밀양의 영남루 경치가 좋아 / 팔도에 한량이다 모여든다
- * 역동(열)- 놀다가소 놀다가소 놀다가소 / 저 달이 질 때까지 놀다가소
- * 참여(은)- 다모였네 다모였네 다모였네 / 우리는 이웃사촌 다모였네
- * 전(고유)- 삼각산 만당이 허리안개 들고 / 나 어린 신랑품에 잠 잔동 만동

밀양의 문화를 비추는 햇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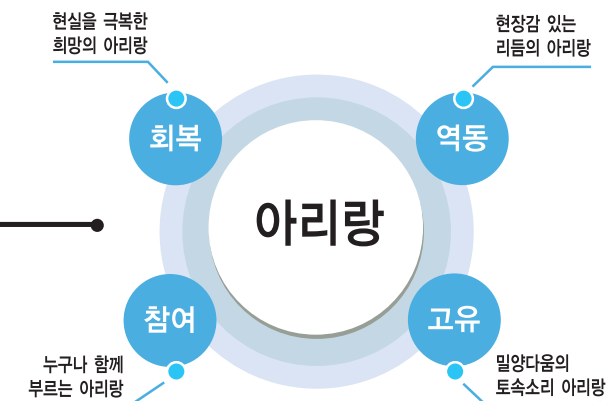
뽕뽕할 밀 볶 양
따뜻한 햇살의 양지바른 밀양



햇살이 숲 위로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아까워 / 참나무들이 잎을 펼쳐 햇살을 받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햇살이 참나무 아래로 떨어집니다. 조금만. 거미줄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미가 꼭 필요한 만큼 햇살 조각을 떼어 냅니다. 거미가 떼어내고 남은 햇살이 숲 아래 어린 풀잎 위에 내려앉습니다. 조금만,

밀양 문화의 뿌리 아리랑

나 아 우리 리 함께 랑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아리랑



이번엔 꼭 필요한 만큼 풀잎이 햇살을 덜어 냅니다. 나도 조금만. 개미가 있군요, 풀잎 밑을 기는 개미개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숲은 꼭 맞게 햇살을 나눕니다. 「조금만」 전문



진장문화예술플랫폼, 미리미동국

10 빈집이 문화공간으로,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

나그네의 발길이 머무는 곳, 지역 예술인들이
용기종기 모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곳, 미리미동국이다.
찬란한 문화의 재산을 목표로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개관한 진장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미리미동국(彌里彌東國)'은 서기 3세기경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魏書 東夷傳)에 기록되어 있으며, 철이 풍부해 농기구로 벼농사를 지으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독자적 문화의 꽃을 피웠다.

이를 토대로 밀양시문화도시센터는 빈집 6채를 5년간 무상 기부받아 지역예술인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空家)와 공가를 연결하는 인트로 로드를 구축하여 옥외공간을 하나의 갤러리화 했다. 또 지붕은 문화예술적 디자인을 접목하여 진장독 일원의 6~8m에 이르는 골목길의 가로경관을 벽화작업으로 개선하여 걷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특화거리로 조성되었다.

12개의 방과 공유 전시공간으로 이루어진 플랫폼 공간에는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상주 작가들은 생활공예, 목공예, 예코 DIY 등 문화예술 작업공간으로써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 10만의 작은 소도시 밀양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3대 아리랑 중 가장 흥겨운 가락,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의 고향입니다. 예로부터 별이 잘 들고 물이 풍부하여 곡식이 잘 되고 번영을 누리던 지역이었습니다.

11월 말 밀양에는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 유휴공간에 밀양다움이 있는 주민과 관광객의 소통 공간,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이 개관식을 가졌고, 밀양만의 색깔을 가진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진장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되었습니다. 미리미동국(彌里彌東國)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밀양 문화 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은 최초로 밀양 땅에 붙여진 이름으로 삼한시대 변한의 12국 중 하나였던 밀양의 옛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리미동국은 철이 풍부해 철제 농기구로 벼농사를 짓고 기름진 땅에는 마를 심어 베를 짜고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지었을 정도로 풍요를 누렸다고 합니다, 풍부한 자원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미동국의 미리(彌里)는 누에와 용을 뜻하는 우리말로 번성과 풍요를 뜻하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의 꽃을 피웠던 미리미동국은 밀양 문화와 예술문화의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미리미동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yuri4315> 글 박은희 기자



요새처럼 보이는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이 들어선 진장 마을은 여러면에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밀양 사람들에게 과거 진장 마을은 비가 오면 홍수가 잘 나는 지역이다 배수가 잘 안되어 질퍽한 동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더 이상 홍수가 나지 않는 진장마을이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빈집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진장거리 문화 예술의 진을 치다'라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쇠퇴 지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공간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사회적 문화활동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문화적 장소 가치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원도심 쇠퇴로 낙후된 진장독 일원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문화로 진을 치는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이 들어선 원래 모습이 이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공간들이 이렇게 주민과 지역 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멋진 문화공간으로 화려한 변신을 하였답니다. 지난 2019년 11월 30일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 개관식에는 몇 십 년씩 이곳 진장 마을에서 질곡의 삶을 살았던 진장 마을 주민 배우들과 밀양의 꼬마 스타 군단, 밀양 아리랑 상설공연의 주역인 '아리랑 동동' 주연 배우들이 함께 꾸민 진장 마을의 삶과 애환을 그린 '진장 아리랑' 공연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주민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감 가는 멋진 공연을 보여 주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지요.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에 입주한 작가들은 공모를 통해 미술 공예 금속 섬유 도자기 분야 등 개인과 단체 포함 12개의 7080 자취방에 공유 체험과 전시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장독 여섯 채의 가옥에 공가와 공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옥외 공간을 갤러리처럼 꾸며 놓았고 문화예술을 접목한 지붕과 진장독에서 바라보는 마을 전경도 정겹습니다.
둘러서 굳이 출입구를 찾지 않고도 진장독에서 바로 플랫폼 미리미 동국까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옥상 디자인이 매우 인상적이더군요.



미리미동국 12개의 방에 전시된 입주작가들의 작품 전시 공간입니다.
각 전시공간은 전시와 판매를 겸하고 있으며 체험과 수강신청까지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색다른 취미를 가지고 싶거나 평소 관심을 두었던 분야가 있다면 현장에서 체험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으니 적극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장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예술의 거리



진장 문화 예술의 거리는 진장독 해천 야외무대에서 시작하여 진장 강변로 1길 진장 1길 언 갤러리 카페까지 이어지는 벽화스토리 길입니다. 얼마 전 밀양시 SNS 알리미데이 행사로 방문했을 때보다 많이 바뀐 모습이더군요. 홍수가 자주 나서 언제나 빨래가 가득

널린 진장 마을의 옛 모습을 묘사한 벽화와 구조물입니다. 실제 주민이 사용하던 빨랫줄이 멋진 예술 작품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빨랫줄 벽화를 지나면 연필 모양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곳의 연필 벽화는 밀양의 청년예술가와 작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비 예술가 발굴사업으로 제작된 청년 예술가의 작품들인데요. 진장 마을에서 나온 생활 소품들을 이용한 아크릴 박스 작품으로 아트적인 면을 강조한 작품들입니다.



삼한시대 철이 풍부해 철로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는 미리미동국의 철기 문화도 벽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군사 깃발은 오방색으로 방위별로 다르게 표현 해 두었습니다. 미리미동국의 전체적인 컨셉은 요새를 뜻합니다. 오방색은 우주 만물의 근간이며 나쁜 기운들을 물리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30일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개관일에는 지역 작가들과 진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라마켓과 전시, 체험, 민속놀이 공연과 락락 거리 공감팀과 먼데이 세븐팀의 버스킹 공연도 있었습니다. 향후 진장 마을에서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민공모 락락거리공감 버스킹 공연



시민가수 먼데이세븐 버스킹 공연



벽화로 만나는 밀양 읍성 남문 모습입니다. 1920년대 우표에 그려진 밀양 읍성의 모습을 참고하여 그렸다고 합니다. 밀양 고지도 속 밀양 읍성 모습입니다. 옛날 진장 마을은 군대가 진을 친 마을로 밀양부 관아에 속한 별포군 주둔지가 있었던 장소라서 진장이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진장 마을 문화예술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밀양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장 문화 예술의 거리에서 가장 화려한 해인심 어머니의 담벽화는 화려하고 화사한 꽃을 좋아하는 집주인의 의견을 100% 반영하여 그려졌다고 합니다. 벽화 하나에도 주민들의 취향을 배려한 작가들의 정성이 느껴지더군요.
7080시대에 밀양 진장 마을에는 하숙생과 자취생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로 많은 학생들이 진장 마을을 학업의 진지로 삼고 열심히 공부했던 지역입니다.



진장마을 주민들 중 아이들이 커서 필요 없는 폐품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벽화 구조물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인증 사진 필수 포토존입니다.



진장다방은 플랫폼 공유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추억의 음악다방 컨셉으로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진장다방에서는 실제 테이크아웃 커피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며, 예술인 관광객, 지역주민이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진지인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은 여권이 필요 없는 밀양의 새로운 나라이며 진장 문화예술의 거리는 밀양의 역사와 밀양 진장마을 주민들의 소박한 삶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밀양의 새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거리입니다. 다양한 포토존들이 준비되어 있어 밀양 시내 여행에 필수 코스로 빠뜨릴 수 없는 밀양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습했던 유흥공간에는 밤에도 화려한 조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밀양 영남루와 밀양 아리랑 시장, 의열기념관, 항일운동 테마거리, 진장 문화 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과 진장문화 예술의 거리는 밀양 시내 갈만한 곳으로 묶어서 도보여행으로 돌아보기 좋은 코스입니다. 밀양 시내 명소들과 미리미동국, 진장 문화 예술의 거리는 반경 200m 이내에 구성되어 있어 밀양 시내 여행에 빠뜨리면 아쉬운 필수 코스입니다.

●진장 문화 예술 플랫폼, 미리미동국
밀양시 남천 강변로 3길 3-4

●진장 문화 예술의 거리
밀양시 남천 강변로와 진장1길 일원



시민문화 공유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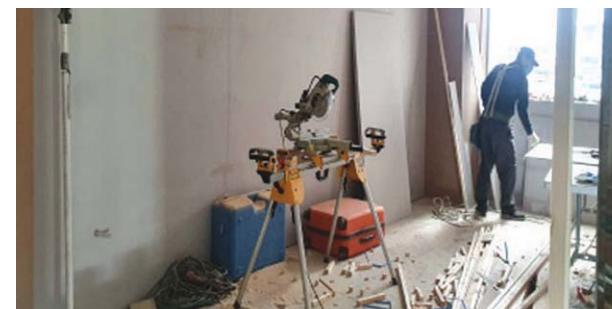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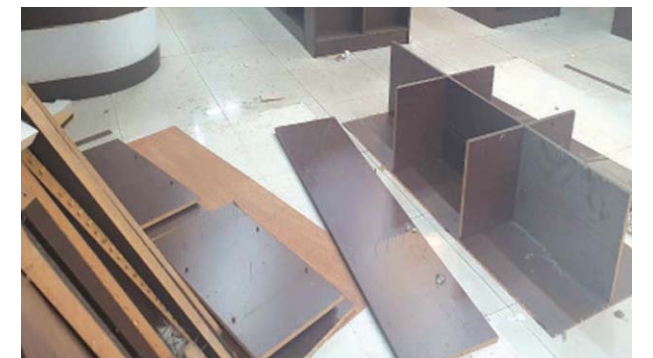
청학마실

청학서점은 58년간 지역서점이면서 인문학동아리 공유공간으로 이용되었으나 원도심의 쇠퇴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였다. 70년대 이후 밀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는 청학서점은 학창시절 추억의 장소이자 정보소통의 공간이었다. 그런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밀양시 문화도시센터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빈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사업으로 청학서점의 전통을 살리고 원도심 재생의 문화적 대응방안으로 문화공유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계획했다.



구 청학서점인 청학마실은 밀양시에서 인문학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창작공간과 주민들의 문화공간, 동호회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미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문화공유공간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구 청학서점을 청학마실로 명명하여 청학서점이 위치해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지역과 문화적 도시재생지인 진장 미리미동국 두 곳을 연결해 문화예술 연계사업들을 진행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1층은 전시와 교육,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되어 많은 시민들과 문화동호인들이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청학서점의 문화공간화 작업





지난 9월 21일 미리미동국에서 청학마실과 미리미동국을 운영하는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센터장 장병수)와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환)은 밀양행복학교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밀양행복마을학교의 장소로 활용될 청학마실의 시스템구축과, 미리미동국에선 교직원 및 청소년 문화연수 등 청소년 문화활성화사업에 협력기로 했다.



행복행복마을학교는 밀양시의 도시재생사업 및 밀양행복교육지구의 마을학교사업으로 밀양시내의 (구)청학서점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로 교육공동체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삶에 기초한 의미있는 배움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구축하고 있으며, 밀양시청에서 시설 구축비를 경남교육청에서 운영비를 편성해 추진하였다.

청학마실은 현재 밀양교육청의 2020 밀양행복교육지구 밀양행복마을학교 구축·운영 사업을 유치하여 공동 운영함으로써 리모델링비 절감과 운영상의 시너지 효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밀양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공간과 전시, 문화예술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청학마실의 운영상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 제공이라는 직접적인 목표가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여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공동체 형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동호회, 예술가 등이 모여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개방성과 편의성, 유연성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 1층 : 문화예술 다목적 공간(세미나, 워크숍, 교육, 전시회, 회의 등)
- 2층 : 문화예술 동아리방, 행복마을학교 문화예술교육실
(1인 유튜브 방송실, 웹툰창작소 등)
- 3층 : 자율공유공간(레고, 놀이방 등)
- 4층(옥상) : 휴게시설 야외 네트워킹 공간

청학마실이라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거점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생활 활동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다. 또 행복마을학교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과 전시, 문화예술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구축장소로 활용되며 시민,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통한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외부 관광객 및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과 동호회들의 열린 공간조성을 통해 다양한 지역커뮤니티 장소 활용 증진으로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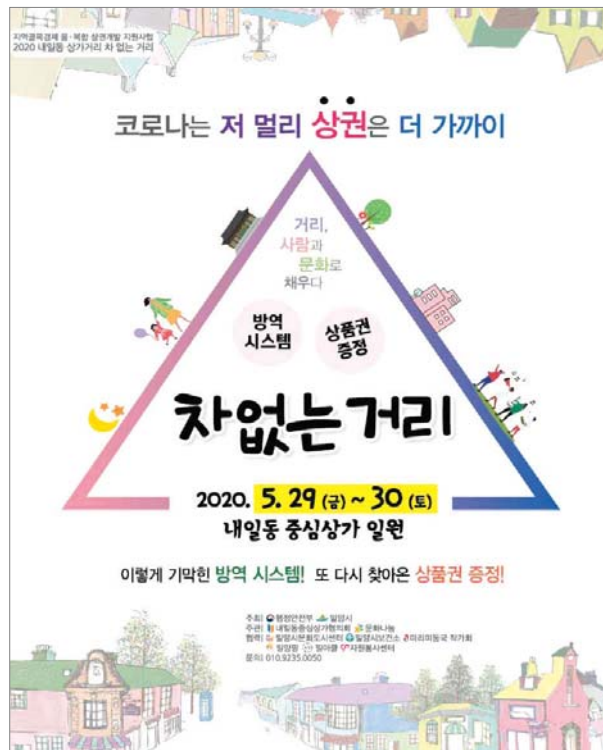


시민문화페스타, 차없는 거리축제, 문화가 있는 날

시민참여로 기획으로 원도심 상권을 되돌리자!

내일동 중심상가거리(북성사거리~영남루 입구)가 시민들의 문화창작과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의 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19년 10월 18~19일에 열린 시민문화페스타 '밀양야행(夜行) 날 좀 보소'을 시작으로 12월 25일 차 없는 거리 '뽕뽕축제'가 개최되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까지의 상가거리 할인 이벤트로 대체되어 진행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다시 5월부터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과 차 없는 거리 축제는 철저한 방역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렇게 내일동 중심상가 거리가 밀양의 문화예술을 총망라한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로 여겨진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주로 생활문화예술인으로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단체들로 스스로 기획과 창작, 그리고 공연과 시연으로 참여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단순한 문화 향유에서 직접 만들고 동참하는 역할까지 하며 행사를 더 활성화시킬수 있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도 돋보였다. 미리미동국작가들을 중심으로 내일동 중심 상가거리 빈점포를 활용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전시전과 체험전, 플리마켓 등으로 지역상권과 접목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불거리도 풍성했다. 이제 내일동 중심상가 거리는 중심부에 위치한 문화예술 플랫폼인 청학마실(구 청학서점)의 개관과 더불어 밀양 시민문화의 집결지로서 역할뿐 아니라 시민문화의 생산과 확산의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시민문화페스타”

시민문화페스타는 밀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문화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시민문화공모사업에 참가한 지역 문화동아리와 문화도시협의체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민동아리들이 꾸미는 공연과 전시, 내일동 밀양읍성 상가거리 빈점포를 활용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전시전과 체험전, 플리마켓 등으로 지역상권과 접목한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민들과 상권의 공생(共生), “차 없는 거리 축제”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지역상권을 연계하여 밀양만의 특색 있고 밀양다움이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생동감이 살아 넘치는 문화도시 밀양을 만들어 나가는게 목표인 차 없는 거리축제는 행정안전부의 골목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일 등중심강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기획단체인 문화나눔에서 주관하며, 밀양시문화도시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밀양 내일동 중심상가 일원에서 열리는 ‘차 없는 거리 축제’는 각종 체험부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참여시 밀양사랑상품권 증정 이벤트, 행사장 내 모든 점포 3곳 이상 영수증 제시의 경우 체험권 증정, 전통놀이 체험 기념품 증정, 문화체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대행사로 버스킹 공연과 북페스티벌,



농·특산물 판매, 밀아클 장터 등이 열려 많은 시민들과 동참으로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피해는 많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어 모든 경제 산업을 멈추게 하는 초래까지 오게 했다. 그동안의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적 거리두기로 완화된 시점이지만 다 같이 조심하면서 가라앉은 지역사회를 되돌아 보고 지역민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되는 행사이다.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에 밀양시의 이야기 곁 밀양읍성’이 선정되어 지역문화 동아리, 단체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밀양시 문화가 있는 날”을 지난 5월 29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밀양다움의 소재를 활용한 이야기곁 밀양읍성거리는 아랑이야기, 점팔재이야기, 사평당 이야기, 영남대로 이야기 등 지역내 역사적 인물, 장소 등을 소재로 매회 콘텐츠가 개발되어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지역골목 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지원 사업으로 열린 ‘차 없는 거리’ 행사와 더불어 협업하여 진행하는 밀양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는 저 멀리 문화는 더 가까이’란 슬로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시민들에 의한 지역문화 활성화란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는 밀양아리랑콘텐츠사업단이 수행하고 있다.



밀양다움이란 무엇일까?

밀양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농경문화를 꽃피워 아리랑과 같은 공동체적 문화로 삶에 대한 갈들을 회복해 왔다. 또 역사의 흐름 속에 특별한 인물들을 배출하여 밀양인의 정신을 이어져 왔으며, 영남루 현판에 새겨져 있듯이 강좌옹부(江左雄府: 낙동강 좌측에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을)의 고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렇게 밀양다움은 역사문화, 인물, 장소 3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 1. 역사문화**: 삼한시대 미리미동국부터 시작된 역사, 철기문명으로 찬란한 농경문화를 꽃피워온 밀양백중놀이와 같은 공동체문화
- 2. 인물**: 특정 이념이나 사상의 틀에 가둘 수 없는 밀양의 인물 즉, 화이부동한 정신(즉 어울리되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좌우를 넘나들든 김완봉, 유교문화에서 승장으로 대일 외교를 실천한 사명당, 불의에 항거해 훈구파라는 기득권세력에 맞서 점필재 김종직의 사상 등.
- 3. 장소**: 강좌옹부(江左雄府)의 고장, 영남제일루(영남루)의 고장이 강산의 좋은 경치와 아름다움이 영남에서 으뜸이라는 옛 명인들의 시문(옛 명현들의 현존 시문 350여개 보존).

밀양다움 1 - 미리미동국부터 시작된 공동체문화

서로의 삶에 대한 연대로 갈등을 극복해옴

삼한시대 미리미동국이라는 국가를 이루어왔던 밀양은 철기문명을 발판으로 외세에 침략에도 굴하지 않은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넓은 들판과 풍부한 하천수로 오랫동안 농경사회를 이어온 밀양지역은 단합된 공동체 문화가 발달하였다. 개인과 이웃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공동체 놀이가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 공동체 놀이는 서로의 삶에 대한 연대로서 갈등 조절과 화해의 기능을 하며 뿌리내렸다.

밀양지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2개의 부분 항목(아리랑-밀양아리랑, 줄다리기-감내계줄당기기)이 있으며, 이 밖에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밀양민중들의 삶이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공동체 조정에 필요한 성숙한 연대의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밀양다움 2 -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인물들(정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의 틀에 가둘 수 없는 밀양의 인물(정신)

영남루 · 밀양강 · 삼문동이 자아내는 산수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밀양 주변의 산 · 물 · 들판의 합작품이다. 산들은 높고 많고 웅장하며(山高多雄), 물은 깊고 완만하고 길게 흐르며(水深緩長), 그 사이 들판은 넓고 비옥하여 풍요롭다(野廣沃豊). 또한 밀양 지명이 암시하듯 뽕빚한(密 뽕빚陽으로 곡물이 여물기에 좋은 기후이다. 아주 옛적부터 곡창지대였다. 밀양에 수많은 양반 고택이 산재할 수 있었던 토대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밀양은 영남 속의 또 다른 '영남', 한국 속의 또 다른 '한국'을 만들었다. "군자는 어울리되 동화되지 않는다(君子和而不同)"는 공자 말은 이 땅을 두고 하는 말 같다. 밀양 청운리 안씨고택(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 고행)에는 양지문(仰止門)이란 현판이 하나 있다.

안씨 가문의 철학자 밀양정신을 대변하는 문구. '시경(詩經)'의 "고산양지 경행행지(高山仰止 景行行止)"에서 유래한다. "높은 산은 우러러볼 만하고, 큰길은 갈 만하다"라는 뜻이다. 밀양이 배출하는 인물들이 그러하다. 특정 이념이나 사상의 틀에 가둘 수가 없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전형이다. 훗날 사림파의 종장으로 추앙되는 김종직은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에 정면 반발하면서 성리학 유일의 계급 독재를 주장한 '아그똥한(아무지만 땡땡한)' 인물이다. 속세를 떠난 승려이면서도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승병을 일으키고, 이후 대일 외교에 성공한 사명대사는 승려이지만 유학자의 면모를 갖춘(儒儒) 독특한 존재였다.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조의제문(弔義帝文)-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
찬탈한 부당성서술, 사림파의
거두, 성리학 종조



사명대사 유정(惟政, 1544~1610)
승려의 신분, 임진난전투지휘,
일본과의 강화조약
조선통신사를 있게한 인물
(250년간 평화 지속)



김원봉(金元鳳, 1898 - 1958)
의열단 단장, 조선의용대, 임시
정부 군무부장, 민족주의민주
전선의장, 남북협상



아랑(조선명종때 밀양부사의 딸
영남루 아랑이야기의 주인공,
정순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

밀양다움 3 - 강좌옹부(江左雄府)의 고장



강산의 좋은 정치와 아름다움이 영남에서 으뜸

고을이 된 것이 크고 작은 것 60여 관청인데, 누(樓-다락), 사(臺-정자), 대(臺-높고 평평한 곳), 관(觀-사원)이 없는 곳이 없다. 대체로 다 보이는 것으로 뜻을 취하여 이름을 지었는데, 홀로 이 다락만이 영남(嶺南)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그 강산의 좋은 정치의 아름다움이 영남에서 으뜸이기 때문이니, 올라가 볼 것도 없이 멀리서도 알겠다. 특히 그 강산의 형세가 좋고 이제 영남루가 크고 넓은 것으로서 또한 강산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충분하니, 이에 또한 적을 만하다.

신숙주(1417-1475)- 동국여지승람 권26, 밀양도호부 누정



밀양다움의

문화도시 콘텐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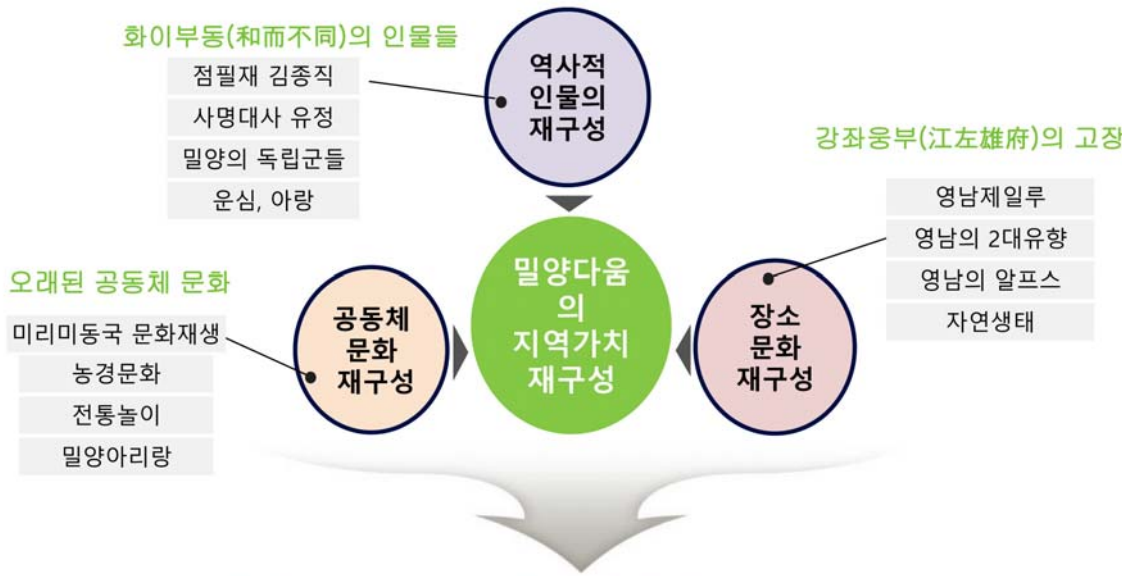
밀양다움을 활용한 문화도시 프로그램 구상으로 시민참여의 문화도시 조성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해
풍부한 문화자원의 잠재력 활용

풍부한 밀양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밀양 주민들의 기억들과 이와 관련한 생활문화사 및 자료들을 기록,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밀양의 생활문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추후 문화도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밀양다움을 투영시켜 차별화를 추구한다.

밀양만의 지역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질적콘텐츠 개발 필요하다. 밀양 시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시민들의 문화 향유 정도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며 전문가들의 콘텐츠 개발 및 생산을 통해 밀양고유 지역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밀양 문화자원의 특징 중 하나는 생동감 넘치고 현장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이 현대적 감각을 덧입어 다양한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지역가치(밀양다움)은 인물人, 문화文, 장소場에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지역가치의 재구성을 통한 문화도시 디자인



지역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햇살 문화도시로 브랜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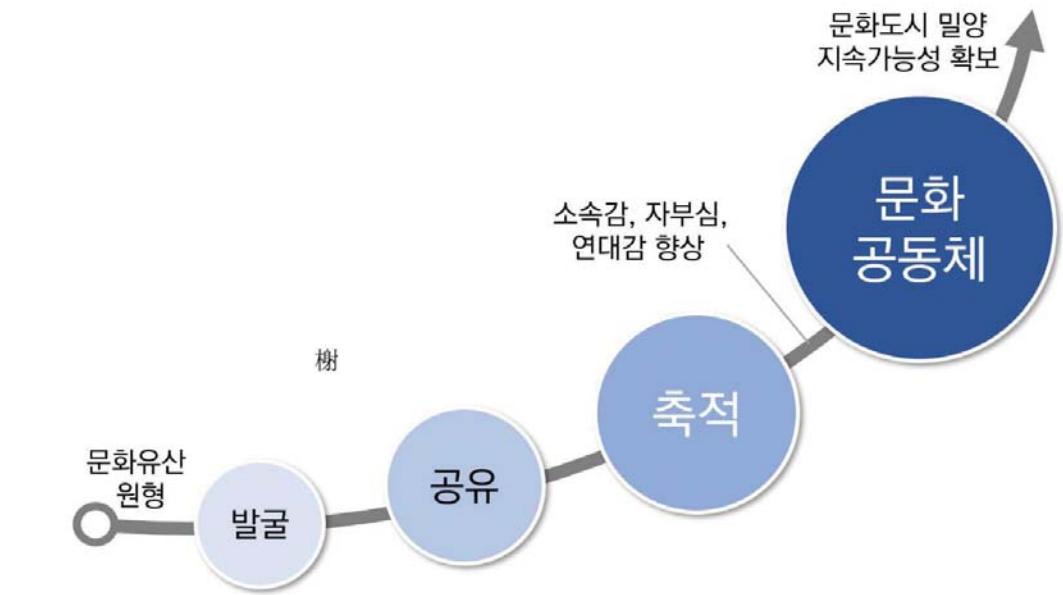
생동감과 현장감을 보유하고 있는 아리랑문화를 지속가능하게 구축해 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원한다
전문가와 협력하여 밀양아리랑을 포함한 밀양의 문화자원들을 표면적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문화적으로 재해석해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하며 개발한 문화콘텐츠들을 밀양시 지역 곳곳에 운영해 밀양의 아리랑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여 도시를 브랜딩한다.



시민들과 지역에 숨겨진
밀양 문화의 원형 발굴 (밀양문화가치사슬)

밀양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 속에 숨겨진 문화햇살의 원형 발굴, 창조, 기록, 축적, 보존과 공유의 단계로 진행한다.
밀양 문화햇살원형 발굴은 역사(History), 생태(Eco), 문화예술(Art) 생활문화(Life), 아리랑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 자원별로 문화 콘텐츠, 공간, 인물, 공동체로 분류하여 아카이빙이 진행된다.

자원 분류	역사 자원	생태자원	문화예술	생활문화	아리랑
세부 분류	문화 콘텐츠 (전설 전래 동화, 지역에 얽힌 이야기 등) 공간 (지역의 정체성 및 장소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 인물 (출신 유명 인물, 기술 보유자 등) 공동체 (취미, 운동, 생활문화 등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지역문화 공동체)				



밀양문화자원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아카이빙을 통해 발굴된 문화자원 원형을 활용하여 이를 문화적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지역 내 문화공동체와 전문가가 협업해 기획 및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밀양문화자원들은 공통적으로 생동감과 현장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을 문화적으로 체현할 수 있도록 각 문화자원(H.E.A.L)별로 콘텐츠 개발 지원하는 것이다.
각 문화자원에 대해 높은 관심과 문화적 역량을 보유한 문화공동체 및 해당 자원 관련 전문가가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행정에서 제공한다.



밀양아리랑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개인 혹은 단체로 밀양아리랑을 소재로 일상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및 작품활동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외에도, 시민들이 아리랑에 관해 문화 연구 공모를 받아 주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성한다.
밀양 인물사전 : 밀양시에서 출생 및 거주한 역사 및 문화 인물들과 이들에 관한 스토리를 지역 답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아카이빙해 시대별 및 주제별로 정리해 밀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지원
역사인물 사전, 문화인물 사전, 생태인물 사전 등 초기에는 역사 / 문화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에는 시민활동가, 주민 생활사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전개



‘밀양다움’의 문화원형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확산되어 사업화 되는 과정



문화인을 만나다

1950년대초 미국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지역의 문화활동을 위한 사설기관으로 몇몇 지방에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밀양문화원은 그중에 하나로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후 그 수가 점차 증가해 현재 전국에 200개의 문화원이 있다. 문화원에서는 향토전통문화의 발굴·정리·보존, 문화자료의 조사·보존, 문예진흥 일반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의 향토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토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밀양문화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밀양문화원이 개원한지 70년이 되었다. 손정태 문화원장을 만나 지역문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Q. 전국문화원의 효시라 불릴 정도로 역사가 깊은 밀양문화원을 소개해 주시면..

우리 문화원이 밀양지역의 문화 창달과 전통문화의 전승 보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 사회교육사업을 펼쳐온지 금년으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밀양지역의 향토사에 관한 꾸준한 연구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뚝선 '밀양아리랑'의 보존과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의 발굴을 비롯한 전통문화의 계발과 보전 및 전승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올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애항심과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을 더해 보살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보살핌 덕분입니다.

설립초기에는 활동할 원사조차 없어 당국의 잉여시설을 빌려 어렵게 활동하면서도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결성기에는 김동선 초대 원장님을 제4대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으로 배출시키는 등 전국문화원의 효시라는 과분한 칭송도 들었습니다. 국가지정무형문화제 제68호인 「밀양백중놀이」가 밀양인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으며 경남무형문화제 제2호 무안옹호놀이, 제7호 감나계줄당기기, 제6호 법흥상원놀이 등 전래 민속놀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데 선배님들께서 많은 땀을 흘리셨고, 1998년 이래 문화학교를 개설하여 고전(古典) 공부를 생활화 하였으며 시(詩), 서(書), 화(畵), 악(樂) 등 전반적인 사회교육프로그램 교육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제」로 시작된 민속축제의인 「밀양아리랑대축제」가 2017년 이래 2020년에는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음도 우리시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밀양문화원 신축원사 조감도

Q. 밀양문화원 신축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우리문화원은 설립초기부터 자체 원사(院舍)는 없었고 1950년대 당시 미국공보원(USIS)이나 군립도서관 혹은 시립도서관의 잉여시설을 빌려 어렵게 활동해 오고 있었는데, 지난 4년여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운 결과 다행스럽게도 70년만에 훌륭한 문화원 독립원사의 완공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삼문동 431-10번지에서 지상3층 지하층 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밀양문화원은 부지면적 707평(2,355㎡)에 연건평 1,255평(4,149.97㎡)의 구조로 204석의 공연장과 80평의 전시공간, 3개소의 강의실, 회의실, 향토사연구소, 자료저장실, 풍물연습실과 카페테리아까지 갖춘 훌륭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삼없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사옵고 앞으로는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보다 다양하고 알찬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진행하여 새로운 밀양문화원의 역사를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문화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일은?

현재 우리문화원의 활동과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향토자료를 포함한 유,무형의 자료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밀양문화원70년사」를 발간하면서 편찬계획에서부터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기록, 편집 교정, 발간 등 일련이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밀양문화」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 책은 자랑스런 밀양문화원 70년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개강식



실버문화페스티벌 「어른이행복무대」 출연한
‘날줄보소연주단’



문화가족 자매부대 박위함잠수함 친선방문

Q. 밀양문화원에서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향후 계획은?

문화란 삶을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문화와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문화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자각하고 앞으로 긴 안목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밀양문화원이 우리지역의 중심단체로써 역동적인 자세로 밀양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연구,보존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는 그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를 말하며, 그 곳에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고 선조로부터 살아온 삶의 양식과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시대의 소중한 유산의 바탕위에 새로운 오늘을 창조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화원은 시민들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의 산실로써 그 기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시민여러분께서는 어떠한 편견과 두려움도 갖지 마시고 문화원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인문학을 비롯하여 레크레이션과 힐링프로그램, 민속놀이와 서예, 미술 등등을 마음껏 즐겨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많은 이용과 아울러 지도 편달이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로 행복한 아이들, 아이들이 행복한 밀양

놀이매장 협동조합

놀이협동조합 얼음땡(이사장 권해주, 이하 얼음땡)의 지향점이다. 밀양 전역에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넘쳐나도록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현재 1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1월에 설립한, 2년 차 신생 협동조합이지만 놀이 활동의 시작점은 2017년 '내맘대로 놀이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겨울, 생협 조합원 활동을 함께 하던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마당을 준비했다. 평소 차량 통행이 많지 않던 골목길을 막아 굴렁쇠와 딱지, 제기 등 놀잇감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내버려두자 아이들은 외투도 벗어던지고 코끝이 빨개지도록 뛰어놀았다. 햇볕은 따뜻하지만 바람은 매서운 1월의 어느 날, 함께 했던 어른들은 기쁨으로 빨갛게 물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새삼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놀이'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이후 뜻을 모은 엄마들은 자발적으로 놀이교육을 받고, 삼문동 솔밭에서 한 달에 한 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터를 열었다. '내맘대로 놀이터'라는 이름은 참여하는 아이들이 투표로 결정했다. 아이들이 노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했기에 매번 떡, 음료 등 간식도 준비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열리는 놀이터. 보호자가 없어도 올 수 있는 놀이터. 늘 맛있는 간식이 기다리고 있는 놀이터. 내맘대로 놀이터를 시작하며 꿈꿨던 놀이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소수의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활동은 쉽지 않았다. 홍보와 재정 문제에 늘 시달렸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용할 실내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어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아무리 접근성이 좋은 곳에 놀이터를 열어도 엄마아빠의 허락 없이 아이들이 놀이터에 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이들이 왜 놀아야 하는지, 어른들에게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던 중 2018년 밀양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었다.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었다. 이미 전년도에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김해에서는 학부모 놀이선생님 양성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었다. 절호의 기회였다. 내맘대로 놀이터를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은 밀양학부모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청에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복교육지구 담당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8년 상반기 학부모 놀이선생님 양성과정이 개설되었다. 약 20명 정도가 수료했고 기존에 내맘대로 놀이터에서 활동하던 놀이활동가들이 합류하여 '하·늘·세·아·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라는 놀이활동단을 조직했다.

놀이활동단 아늘세는 밀양교육지원청의 든든한 지원 아래 놀이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놀이터를 열었다. 50명 정원에 매번 20명 이상의 대가족이 있을 정도로 지원자가 넘쳤다.

그러나 활동이 지속될수록 고민이 깊어졌다.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언제까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동아리 형태로 활동할 수는 없었다.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뜻이 맞는 회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놀이협동조합 얼음땡'을 설립하게 되었다.

'얼음땡'이라는 이름은 '밀양, 아이, 놀이' 세 가지 의미를 모은 답은 것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인 얼음땡의 이름인 동시에 밀양 얼음골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얼음! 하면 멈춰있던 아이들이 땡! 하면 움직이는 얼음땡 놀이의 규칙처럼, 과도한 학습과 경쟁에 지친 아이들을 놀이로 자유롭게 해주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2019년 설립 절차를 마친 후 얼음땡은 밀양행복교육지구에서 시행하는 마을교사 활동을 비롯하여 밀양아리랑대축제, 지역 맘카페인 밀아클 프리마켓, 내일동 크리스마스 몽땅축제 놀이부스 등 지역의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밀양의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래놀이와 전통놀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멋과 흥이 담긴 국악을 접목한 장단놀이, 화합과 협력을 위한 공동체 놀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그 결과 얼음땡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내맘대로 놀이터’가 밀양시립박물관의 지원을 받아 2019년 하반기부터 박물관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밀양시립박물관의

정식 사업으로 승인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박물관 앞마당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가을운동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열놀이터, 자연과 함께 노는 생태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놀이터를 열고 있으며 매회 평균 100여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얼음땡은 2020년 밀양행복교육지구 지역위탁형 마을학교로 선정되어 읍면 지역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하는 ‘어디든 놀이터’ 사업도 함께 진행하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가 찾아왔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는 얼음땡의 활동에도 제동을 걸었다. 놀이란 모름지기 함께 하는 것 여럿이 모여서 웃고 떠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며 아이들의 놀이는 위축되었다. 놀이란 곧 아이들의 생명이란 생각으로 놀이를 시작하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놀이터를 열지는 다짐으로 ‘내맘대로 놀이터’를 열었으나 코로나19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슬프게도, 만나지 않고 모여서 놀지 않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아이들과 놀며 협동심, 배려심, 공동체 정신을 강조해오던 얼음땡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놀이의 모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놀이의 본질은 즐거움이며 아이들은 놀면서 세상을 배우고, 놀면서 자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놀이를 잃지 않으며, 어린

시절 즐겁게 논 경험은 훗날 어른이 되어 숯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코로나19가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위협하는 큰 변수로 자리 잡았지만, 얼음땡은 그 속에서도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밀양에 건강한 놀이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수 로컬그룹 소개

밀아클

둘이 다 되어 가는 둘째. 아이는 아픈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정보는 없고 밀양으로 시집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을까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밀양에는 이런 정보를 공유할 커뮤니티가 필요할 것 같아 만들었습니다. 2011년 10월에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 밀양아지매클럽(이하 밀아클)은 올 해로 10년차에 접어든 회원 수 약 만 명으로 밀양지역 대표 커뮤니티 클럽입니다. 사회에 막 접어든 20대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소통하는 곳으로 개인적인 수다부터 육아/교육/건강/취미/여행/취업 정보를 비롯한 밀양시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곳입니다. 밀양지역의 회원들이다 보니 밀양의 곳곳의 소식을 아마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곳도 밀아클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부터,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으니 돌아서 가라는 긴급한 정보나 지역의 축제나 행사정보도 올라오고 이웃 간 먹거리를 나누어 먹거나 필요한 것을 빌려주고 나누어 주는 게시글까지 회원들간의 정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곳입니다. 2017년 1월 카페 내 게시글로 회원들간의 물건나눔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밀아클아리랑장터라 이름을 정하고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회원들간 나누는 물건을 기부를 받아 장터를 열고 기부 받은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작년까지 2천여만원이 넘는 장터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여 밀양시 취약계층에 쓰이도록 밀양시에 기부하였습니다. 장터 행사가 점점 커지다 보니 공연봉사, 교통봉사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밀양시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밀양시급식지원센터, 한국전력, 밀양시 홈페이지에서도 지원해주셨습니다.



뿐만아니라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김민정, 황상희, 박혜정, 이수빈, 김윤희, 조경숙) 함께 즐겁게 밀양을 살아가보자는 마음이 하나되어 봉사해주는 우리 엔젤들에게 항상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은 좀 더 풍성한 장터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터를 진행하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 주변 상가와와의 문제, 그리고 문화행사까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2020년부터는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와 연계하여 내일동 상가거리에서 장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행사와 함께 체험할 것과 볼거리, 먹거리를 더하니 더 큰 축제가 되어 풍성한 장터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흔하디 흔한 가위바위보 게임에 웃고 웃는 시민들을 보며, 아이와 함께 아나바다를 실천하러 나온 시민들을 보면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잊지 못해 다시도 장터를 열게 됩니다. 앞으로도 밀아클을 통해 밀양의 문화와 지역의 여성들이 다양하고 알찬 건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바르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교육으로 기획하는

밀양청년작가회

Art Planner 박은주

박은주는 1974년 밀양에서 출생하여, 국립삼척대학교 조형학 부 공예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졸업 후 대학에서 행정조교로 일을 하며 외부강의와 기획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2000년 사한국미술협회 밀양지부의 회원 및 운영진, 밀양청년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체전과 개인전을 바탕으로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학교예술교육과 전업 작가를 병행하면서 전업 작가의 삶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고,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하면서였다.

사회 문화 예술교육을 접하게 된 것은 극단마루와 함께 2011 지자체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미술파트 강의를 맡으면서 시작 되었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주강사로 활동하면서, 밀양청년작가회의 이름으로 2014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업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기획공모에 떨어지기도 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밀양은 아리랑 말고는 내세울게 없다는 쓴소리를 들으면서 이를 악물고 기획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2014~2016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를 기획하였고, 2016~2017에는 시도기획공모사업에 기획자로 참여하게 되어 단물마를 박씨할매 라는 사업명으로 마을의 축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의 역사를 주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이것을 스토리텔링하여 연극도 만들고, 예술을 일상에 스미는 작업으로 주민벽화, 마을문패등을 함께 만들면서 또 추억을 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조금씩 행정과 예술의 거리를 이해하고 좁히는 역할이 기획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작년과 올해에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문화도시센터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밀양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진장의 벽화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주민들의 삶속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청년작가라는 타이틀로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교육하면서 나 자신이 언제까지 청년일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후배들을 컨설팅하고 다독이며 기획자를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나의 역할인지를 늘 고민한다.

대학에서 도자기를 전공한 나는 직업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도자기를 배우게 되면서 가르칠 때에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스토리텔링하여 강의를 한다. 잘못 만들어져 버려지는 도자기는 천년의 쓰레기로 나의 맘을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작업실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한 햇살이 나를 반긴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의 일정을 체크하고 휴작일에 들어가면 시간이 마법과 같이 흘러가고 만다.



그래도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지금의 나는 여전히 흙쟁이이고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도 자리에서 흙쟁이로 남을 것이다. 여전히 기획공모사업에 도전 할 것이고 후배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이 있다면 밤 늦도록 기획서를 쓰고, 예술인들과 토론하고 예술의 일상화를 꿈꾸는 문화기획자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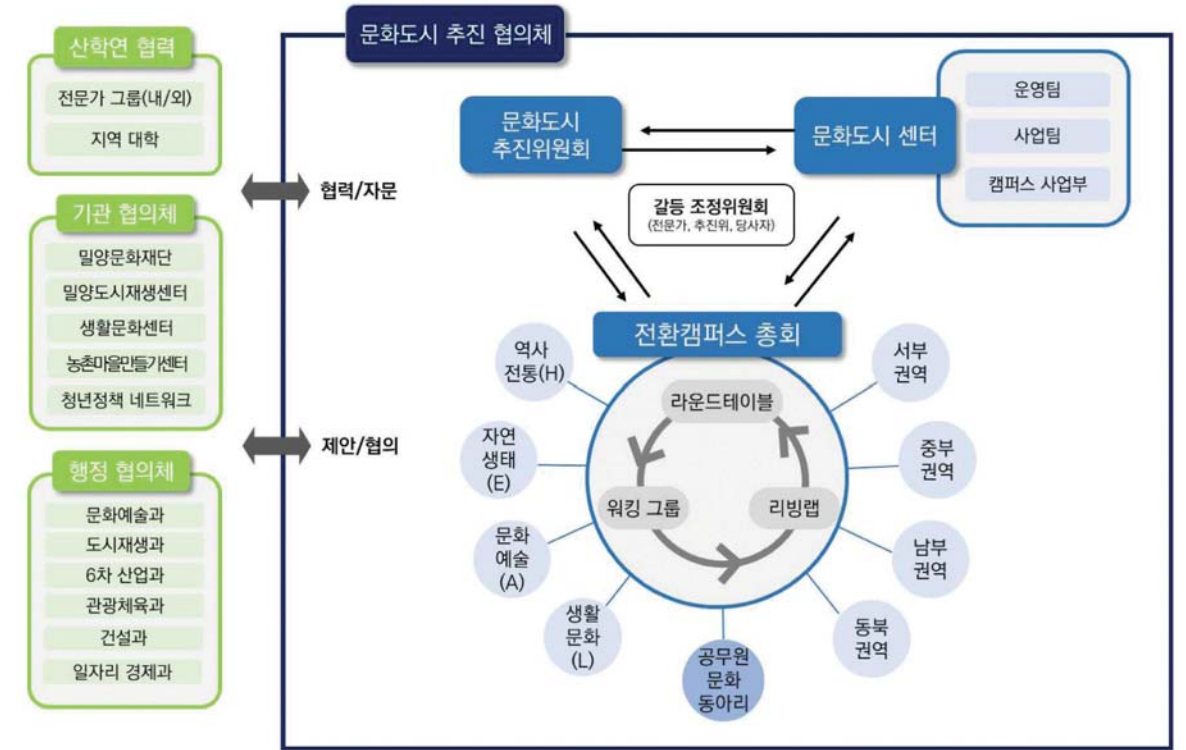
문화 아젠다 (Culture Agenda)

문화도시 거버넌스 (협력과 소통의 문화도시를 만들자)

밀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특화지역사업 선정에 따라 그 사업체계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사업체제로 시스템을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9년 밀양시문화도시센터를 선제적으로 설립하고 추진 위원회를 출범하며 다양한 문화사업 진행을 통해 문화도시의 기반을 닦고 있다.

기존의 문화도시추진협의체를 더욱 확장시켜 다양한 문화예술 생태계, 공공기관, 시민거버넌스를 포함하도록하였다. 또한, 다양한 과정을 거쳐 수렴된 시민의견이 밀양문화도시 환류체계를 통해 사업의 심의 및 평가에 반영되며 사업 방향을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 밀양문화도시추진협의체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밀양문화도시센터, 전환캠퍼스로 구성된다. 또 필요에 따라 전문가 그룹, 지역 대학으로 구성된 산학연, 밀양시내 중간지원조직들로 구성된 기관 협의체, 사업간 연계를 지원할 행정협의체와 협력하는 구조이며 크게 자치단체와 시민문화리더, 예술가,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협치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뒤 받침할 밀양시의 문화정책을 지원하고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이해 당사자와 시민이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문화도시 커버넌스의 목적이다.



[그림] 문화도시 거버넌스 체계

문화도시 - 행정 - 중간지원조직 - 도시재생 간 협업을 통한 효율성 제고

문화도시센터를 비롯하여 문화도시사업 관련 밀양시 연관부서와 공공·민간 부문의 협의회, 밀양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각각의 기관이 제시한 주요 의제에 관해 논의하며 문화도시-행정-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 간 협업을 통해 효율성 제고,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 부서간 협의를 위한

TF 팀이 2017년부터 구성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행정협의체 간의 회의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간 협력 및 연계 방안과 사업 추진 과정 중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토의를 하고 있다.



행정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문화동아리를 운영하며, 공무원도 한 명의 시민으로써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본 사업 이후 사업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 주도적 지원이 아니라, 밀양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성향이 시민 사회에서 발현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기획되고 향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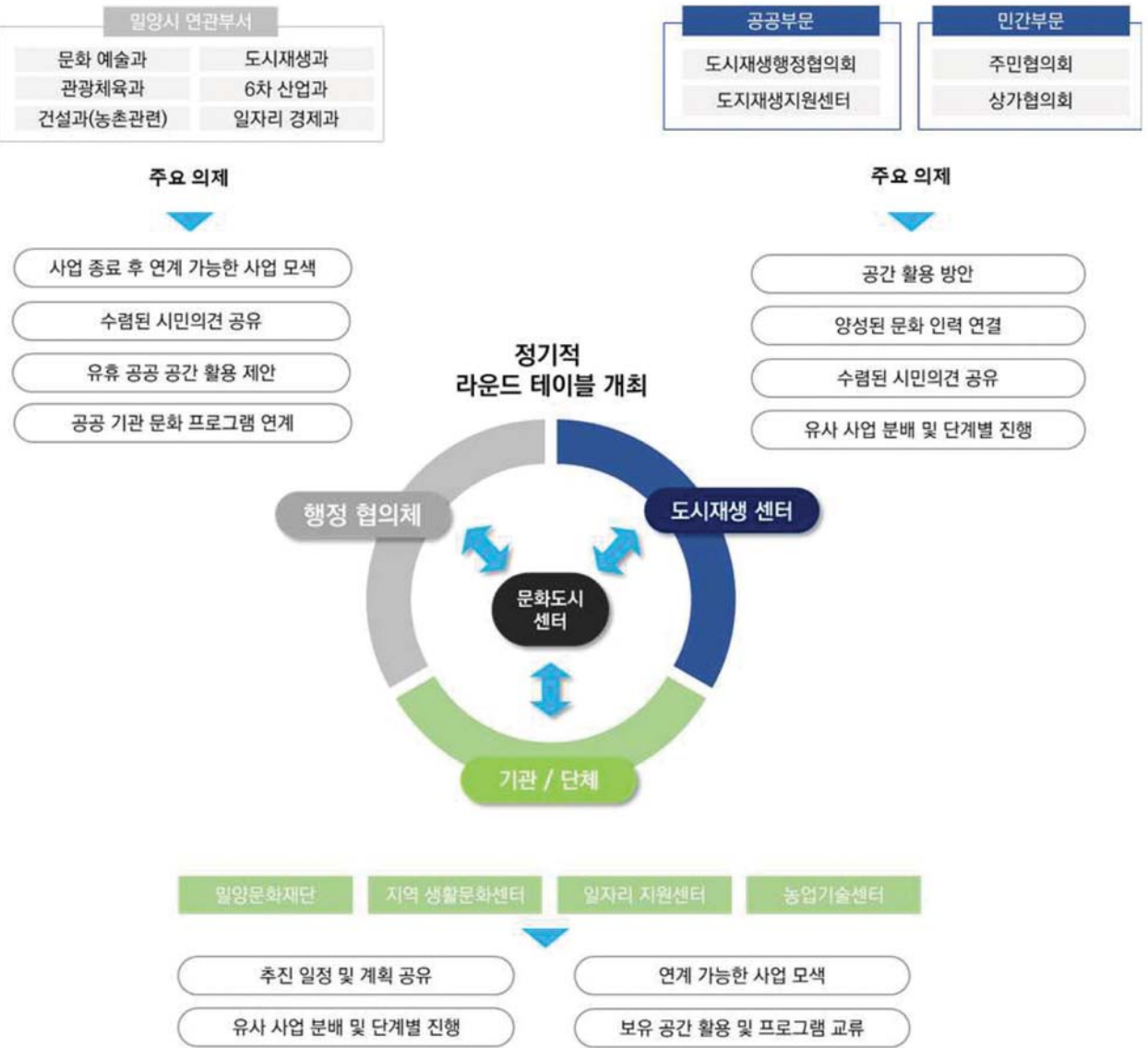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문화도시를 통해 제안된 의견이 단순히 사업의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행정의 정책 및 기획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사업을 지원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밀양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년 공무원을 중심으로 문화동아리 '문화도시 디자인팀'을 운영하여 본사업 이후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유지되게 하기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경험하여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문화도시 디자인팀 : 20여명의 행정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문화동아리를 운영, 문화도시 사업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함.



[그림]연계사업 추진 라운드테이블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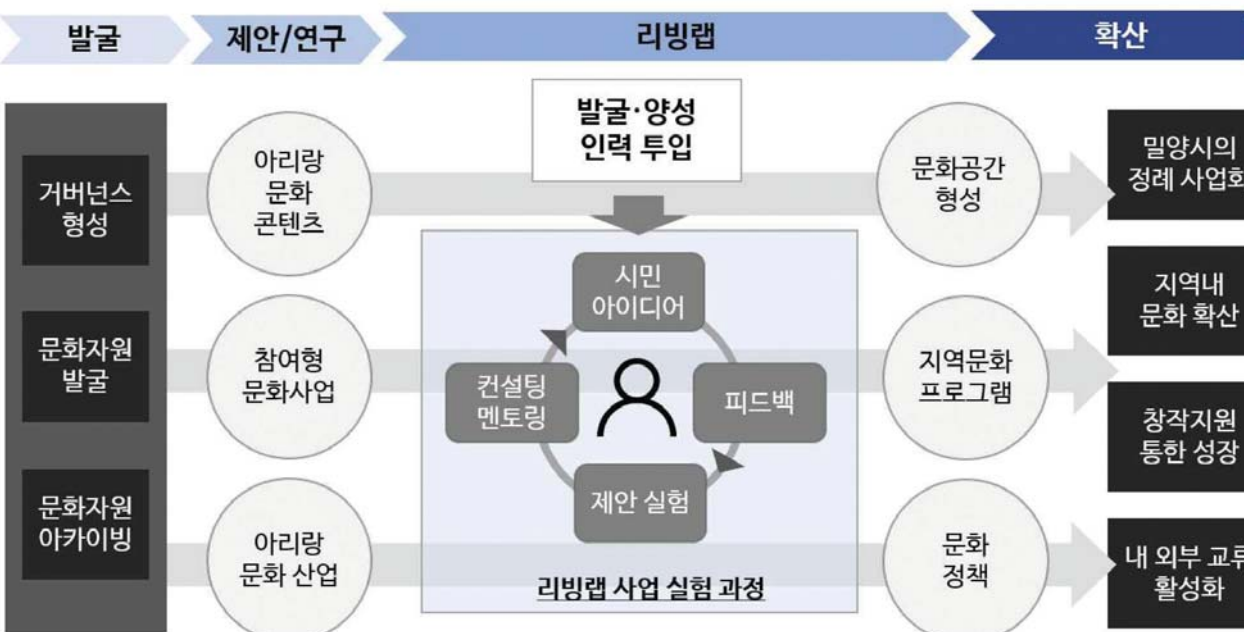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역량 강화

지역의 문화사업을 이끌 인력을 발굴 육성을 위한 종합적 인력양성 관리체계 구축하는 것은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지역의 자발적인 지역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사람 중심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여 발굴·육성된 인력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 그들의 제안을 함께 실험하고 확산하는 시민주도 프로세스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발굴 및 축척된 거버넌스,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햇살 문화콘텐츠 개발, 참여형 문화사업, 아리랑 문화산업

발전 사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진행시 관 주도의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직접 실험되고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빙랩 과정을 거친다.

리빙랩은 크게 문화사업을 통해 발굴·양성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전문가의 컨설팅, 멘토링을 거쳐 직접 지역에 실험되어진. 그리고 실험 중에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험이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기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문화도시 사업 흐름 체계

문화도시센터의 시작 그리고 이해

[밀양신문-05-29]

현재 밀양연극촌 관광안내소 2층에 사무실이 있는 밀양시문화도시센터는 밀양시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시민주도의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여 장병수 문화도시센터장과 직원들을 만나 밀양시 문화도시사업 추진사업들과 앞으로의 추진과제 등 아리랑문화도시 밀양을 위해 시민들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보에서는 5편에 걸쳐 특별취재를 마련하여 먼저 시민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시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둘째 밀양시의 문화도시 추진사업들과 경남의 타 지자체의 문화도시 추진과정을 소개하여 밀양이 문화도시로서 나아가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정책의 비전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으로 정하고, 문화도시 추진 비전의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목표로서 “지역의 공동체활성화,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구축, 사회 혁신 제고”를 포함하는 4대 추진목표를 정하였다.

문화도시의 추진방향은

첫째,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스스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하고, 대규모 시설 조성의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적 소프트웨어(인력, 콘텐츠)가 사회발전과 연결되는 도시 문화생태계 조성에 지원한다.

둘째, 중앙 주도, 관 주도의 상의하달식 지원이 아닌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 리더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협치,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셋째,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문화도시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 협력에 의한 환경진단, 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추진을 돕고 문화도시 조성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문화도시사업의 이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문화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서 ‘문화도시’의 가치 확산에 있다.

전 세계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문화도시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가 확산됐다.

2018년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성공사례를 창출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2019년부터 매년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5~10개 문화도시 지정하여 22년까지 30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밀양시문화도시센터

밀양시문화도시센터는 2018년 12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도시 추진 전문 조직체로 2019년 3월 4일 개소해 운영되고 있다.

밀양시문화도시센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밀양문화관광연구소장과 밀양아리랑콘텐츠사업단장을 역임한 장병수 센터장과 백산생활문화센터와 김해여성복지회관 관장을 역임한 김은아 팀장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밀양시문화도시센터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2019)을 추진하였으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19-2013)을 추진함과 더불어 2019년부터 법정문화도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시민공모사업을 통해 16개 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여 선정된 팀들은 활발하게 문화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특히, 시민공모사업을 통해 배출된 활동가들의 결과발표회인 시민문화페스타 ‘밀양야행’을 통해 밀양시민들과 문화적 활동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스토리텔링과 결합한 참신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시민의 생활 깊숙한 곳에서 생동하는 생활 밀착형 문화기획을 이끌어내고 있다.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민간 문화전문가를 30여 명을 배출하였다.

2019년 4월에는 ‘진장거리, 문화예술의 진(陣)을 치다’라는 사업명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과 진장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쇠퇴된 진장마을을 활성화 시켜 나갔다.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 10여 차례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예술가와 진장주민들이 유휴공간(빈집) 재해석을 통해 ‘진장, 명석을 갈다’라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험적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플랫폼 조성하여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인 ‘미리미동국’을 개관하였다.

새롭게 탄생된 공간은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자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소통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밀양문화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진장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청년예술가를 중심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아카이빙 하고 아카이빙 된 스토리를 통해 문화마을로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진행되어 주민과 청년예술가들이 작업한 벽화를 진장거리가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되었다.

2020년은 지난해 사업과 더불어 문화사업을 확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읍면 지원사업으로 문화햇살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햇살찾기는 읍면지역의 주민과 워킹그룹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문화자원 및 원형인 마을역사, 문화, 예술 등의 자원 중 구전되었으나 성문화 되지 못한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여 확산에 힘을 보태기 위한 사업이다. 더불어 문화 소외지역 및 문화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문화 활동 진행함으로써 기존 문화 사업 및 문화시설의 혜택이 닿기 어려운 주민들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그 과정을 통해 10만 시민들이 모두 문화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한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협의체 등이 함께 하는 민간 거버넌스는 워킹그룹과 함께 워크숍, 세미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자발적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라운드테이블과 추진위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내실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향후 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문화도시사업’ 선정으로 가는 준비단계로 ‘밀양다움’의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밀양문화 콘텐츠 개발인 ‘밀양야행’ 등 다양한 사업들로 연계되고 있다. 현재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위한 ‘문화도시 시민워크숍’을 매주 진행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밀양시문화도시센터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목표로 문화예술 생태계, 시민생태계, 공공기관 등과 결합하여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리더들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문화활동 의지와 동기 부여를 통해 시민이 문화적 삶으로 행복해지는 문화도시 밀양을 만들어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밀양문화도시센터가 가는 길

[밀양신문 2020-06-29]

◎문화도시사업의 추진과정

첫째,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사업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도시문화 거버넌스(공공경영)를 형성하여 문화적 도시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사회자본(도시문화리더-창의적 미래인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화적 도시경영체계 안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구성된 인적가치를 바탕으로 도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생각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휴먼네트워크 중심의 문화생태계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하는 것이다.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은 문화도시 경영체계구축 사업 및 문화인재 양성·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도시 경영체계구축 사업은 ‘문화기획자-문화시민-공공행정’이 함께 모여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정식 의사결정 체계를 구조화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도시문화의 경영체계와 구조가 구축되고 도시를 이끌어갈 문화리더를 발굴할 수 있다.



둘째,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사업은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축적 과정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시의 문화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도시경쟁력을 생성 및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시가치 재발견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의 문화자산과 지역 전반에서 생성 및 향유되어지는 문화기능을 도시가치이자 정체성으로 통합하면서 문화도시의 브랜드로 정착 및 표출할 수 있다.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을 위해 도시가치 발굴 및 활용 사업과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가치 발굴·활용 사업은 지역의 현재적 가치와 자산에 대해 새로운 접근시각을 도입하여 도시가치 기록 및 재탐색 과정을 통해 지역가치를 재발견 및 재조명하고, 재발견 및 재조명된 지역가치를 도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으로 개발·확장·확대하면서 도시와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역자산을 개발하고 축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도시 문화기능의 접근성 향상과 공간배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문화도시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화환경을 조성 및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셋째,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사업은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에 실효적인 효과를 발현하는 지역중심의 새로운 생산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지탱하고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도시의 문화가치가 지역사회의 각 분야 및 구조와 연결되어 도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지역에서 문화가치 중심의 사회 성장구조를 생성하여 사회효과를 창출한다.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창출을 위해 도시혁신·경제 활성화 사업 및 문화적 장소재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사업은 문화가치가 사회 각 분야와 연결하여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사회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가치 중심의 지원사업이다. 문화적 장소재생 사업은 도시의 유휴공간들에 대한 문화적 재생을 통해 침체된 도시의 장소가치를 재생성 및 회복하고 이를 도시구조 안에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하여 문화를 통한 도시혁신 장소이자 장소기반의 문화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역재생의 거점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도시발전구조 및 문화가치 중심의 패러다임 생성으로 지역의 문화일지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지역 문화자치력 향상 사업은 도시의 문화경영체계를 바탕으로 자율추진구조 안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계획하고 제안하면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이다. 지역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역 스스로 고유특성을 살린 문화사업을 개발하고 제안하거나 도시에서 희망하는 새로운 문화사업 및 현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중요사업을 특화 및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이 스스로의 문화계획을 통해 문화적 사회정체성을 인식 및 획득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식과 시민에게 합의된 정식구조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문화적 사회정체성을 획득하고 문화생태계를 가꾸어 나가면서 지역문화 자생력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의 문화자치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밀양시 문화도시 사업

첫째, (문화적 장소) 기존 유휴공간을 도시의 문화적 활동이 집중되는 문화장소·허브로 재구축하고 활성화에 따라 문화클러스터로 확대. 내일동과 내이동, 가곡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 또는 진행 예정으로 있는 상황으로 도시재생사업은 하드웨어인 공공 공간사업에 치중하여 소프트웨어인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원도심 지역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 현재 빈 점포들이 즐거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할 뿐 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촌마을 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농촌휴양체험마을, 농촌정보화마을 등 농촌마을 또한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공간 역시 문화적으로 활용할 문화전문가와 콘텐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사업으로 양성된 전문기획자들이 각 지역에 마을문화활동가로 마을마다의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냄과 더불어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연계해 나가고자 한다. 마을해설사 양성, 마을축제 개발 등을 통해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소개하고 마을의 특화상품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연계기관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문화적 콘텐츠) 지역 문화가치 및 자원의 재발견·융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프로그램 기획·추진. 현재 우리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정서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밀양아리랑과 같은 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문화햇살찾기) 지원사업을 통한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 문화예술사업 지원. 도심과 달리 농촌의 경우는 문화활동가들이 직접 다가가지 않을 경우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문화기획 전문가가 없이 진행되는 주민 문화 역량강화사업은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대도시보다 농촌형 도시에 문화도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도시사업의 문화햇살찾기를 통해 10만 시민들이 모두 문화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한다. 넷째, (문화전문인력) 지역 주민·청년 대상 통합지원을 통해 문화도시를 이끌 문화리더를 양성. 청년 마을활동가들이 농촌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활동함으로써 농촌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농촌휴양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등의 사무국장 지원 제도 및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지역에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밀양만의 특화된 문화적 자원을 전국, 세계적인 공연으로 진행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밀양만의 문화브랜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과 연결하고자 한다.



경남의 문화도시를 찾다

(김해문화도시센터, 통영시문화도시센터)

[밀양신문 2020-07-29]

◎김해문화의 향기를 찾아

경남 유일의 예비문화도시 선정 지역이었으나 최종 심의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제2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서고 있는 김해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영준)를 지난 6월 15일 찾았다. 김해문화도시센터는 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김해한옥체험관에 위치하고 있었다. 김해는 1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심의에서 탈락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후 공존과 교류의 문화생태계 가동을 위한 실험과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사업방향을 설정했다. 가야역사의 현대적 해석을 통하여 역사전통의 특성을 표출하고, 시민주도 기획을 통한 도시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과 문화 활력을 확대하며, 열린 문화적 토양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해문화도시센터 이영준 센터장(가운데)와 함께



▲김해한옥체험마을

문화도시센터의 독립성, 거버넌스(공동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함) 협력체계 보완, 역사의 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고도 김해에서 재기발랄한 미래의 역사가 목격되다'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문화와 도시경영, 문화와 시민력, 문화와 역사성, 도시재생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도시경영 분야는 문화도시센터와 문화도시협의체, 문화도시 연구 개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문화와 시민력 분야에서는 얘기하는 고도, 기억하는 고도, 꿈꾸는 고도, 시민이 직접 기획실행하는 축제 프로젝트(와이문화축제 등) 등으로 시민 스스로 문화적 감수성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문화와 역사성 분야에서는 사람과 미래, 장소와 미래, 도시와 미래 등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통합적 가치를 풀어내고 있다. 도시재생 분야는 문화도시예비사업과 연계하여 '다(多)어울림광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경남에서는 김해시와 통영시가 2차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된 상태이고 밀양시, 진주시, 창원 등이 문화도시를 향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영문화의 향기를 찾아

2차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된 통영은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의 동의와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유산을 최고의 예술행사로 발전시켜 '통영국제음악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이다. 또 유입된 문화예술인 공예를 계승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 공예도시 자리를 지켜오고 있으며, 유네스코로부터 글로벌 학습도시와 음악창의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이기도 하다. '도시 그 자체가 예술로 설명되는 문화도시 통영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통영시를 지난 6월 29일 찾아 문화도시지원센터 유용문 센터장을 만났다. 통영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역 역사의 자료가 집결한 듯 한 통영시박물관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통영의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총 4개 분야 20개 사업에 7억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다. 문화도시 거버넌스 분야로는 문화도시포럼, 라운드테이블, 디자인단



▲통영문화도시센터 유용문 센터장(왼쪽)와 함께

운영 등으로 이를 통해 유기적, 실질적,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축 분야로 지역전문가역량강화, 청년 문화활동가 학교, 생활문화기획자 양성으로 통영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실무체계 확립과 실무인력 양성하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활용 가능한 공간과 예산 확보작업 진행을 위해 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5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지방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매년 10개 정도 지정해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2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올해 말경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하니 그에 대한 관심이 깊어가고 있다.

▲통영 동피랑

예비사업으로 통영문화아카이브, 통영영상리서치, 통영 문화잡지 발행, 시민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연계사업으로 통영국제음악제와 연계한 워크숍, 프린지 문화도시 프로젝트와 동피랑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활동, 문화활동가 캠프 구축, 지속가능한발전교육재단, 도시재생뉴딜, 통영사진페스티벌 등이 전개된다. 기존 사업이나 문화활동을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 유기적인 비전을 확보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유용문 통영시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지역의 문화가 곧 경제력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치마킹에 너무 의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발굴하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남의 문화도시를 찾다

(준비 도시 탐방)

[밀양신문 2020-09-23]

◎진주의 문화 향기를 찾아

밀양시보다 조금 작은 약 712.95km²의 면적에 347,000여 명의 인구를 가진 진주시를 찾았다.

진주는 밀양의 영남루가 축석루와 닮아서인지 정서적으로 밀양과 비슷한 정감을 느끼게 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진주시는 2020년 2월 14일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에 착수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준비해 온 다양한 그룹의 실무추진단 구성과 회의, 포럼과 공청회 개최, 청년 다락 문화콘서트 개최 등 시민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진주문화의 향기를 찾아

문화도시위원회는 문화예술, 역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행, 시민 제안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김덕환 위원장은 2020년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고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위원들의 의견과 전문적 지식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6월, 예비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와 추진전략 회의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진주시는 다양한 전통과 현대문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한데 어우러진 시민 중심의 문화가 매우 강한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시민 중심의 문화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성장구조를 갖춘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관내 공공기관-대학-문화예술단체와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은 물론 공감대 형성과 연대를 위한 문화도시 추진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7월에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아지매 다이나믹 수다(秀多)방'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공모로 모집한 혁신도시 여성 15명과 원도심 거주여성 15명이 참석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진주'라는 주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의 형식을 택했다.

1차 수다방 행사에서 '미래 내가 살고 싶은 진주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2차 행사에서는 1차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분석하여 진주시 미래상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내용들은 진주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된다.

8월 말에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미만의 지역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2020 청년 문화활동가학교' 개최를 선언하고 청년문화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 양성에 돌입했다.



▲창원문화의 향기를 찾아

이 교육은 문화도시의 이해, 도시 유희공간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같은 이론교육과 사례지 답사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진주시는 이 행사 외에도 '진주이야기, 청년문화 창작콘텐츠를 만들다' 등 또 다른 문화도시 마중물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시는 이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바 이 전문내용들도 함께 녹여 진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강력한 추진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창원의 문화 향기를 찾아

창원시는 2019년 9월 창원시문화도시지원센터를 출범시키고 도시문화경영, 도시문화활성화, 도시문화연결, 도시문화장소 4개 분야 25개 단위사업 추진과 함께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 도입에 본격화했다.

창원시는 3·15의거와 10·18 부마항쟁의 국가기념일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민주주의문화와 마산 수출자유지역, 창원 기계공업단지 등 노동문화가 공존하는 특성화된 문화 환경이 존재하고 있는 도시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표적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18년부터 마·창·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2020년 법정문화도시지정을 위한 창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창원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경영체계 구축,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적 장소 활성화, 지역사회 활성화, 문화도시 가치 및 효과 발현의 단계별 추진목표를 가지고 도시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주체들과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창원용지공원

▶2019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2019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첫째 문화도시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 교류, 공감의 장 형성과 지역 현안 문제를 문화적인 방법과 과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의제를 도출하는 '문화주제양성사업'을 추진했다.

둘째 재미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소외 지역 및 계층으로 찾아가는 문화를 통한 문화교류의 장 마련과 문화적 풍요와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일상의 무료함과 반복적인 삶에 활력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도시 이미지 확산과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사업'이 추진됐다.

셋째 경성권 문화주체자들의 다양하고 유의미한 활동을 소개하며 정보 교류를 통한 부·울·경 문화자원 공유프로젝트를 연계한 문화활동가 및 문화도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전시, 공연, 퍼포먼스 축제 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축제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넷째 >시(詩)와 여행을 통해 창원문화의 지형도 읽기 >창원 문학인과 문학작품으로 연결된 지역 문화 스토리텔링 >대중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 >창원의 인적자원 지속적 발굴·육성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을 연결하는 '시민공모사업'이 추진됐다.

▶202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2020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는 첫째 마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네방네커뮤니티 공간 발굴 및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유희 공간 또는 공공장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민문화공간 발굴단 사업'이 추진 중이다.

셋째 창원문화특화도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시민 참여 홍보 및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범시민 인식강화를 위한 '문화도시 홍보이카 이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넷째 국내 유일무이한 국제조각비엔날레 개최이자 세계적인 조각가를 배출한 조각도시 창원이 기계·제조업, 신소재 산업과 연계하여 메이커(maker) 문화도시로 성장 가능성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의 '문화도시 창원, 삼시삼색(三市三色)을 담다'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마창진 도시발전 과정에 따른 생성과 소멸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스토리, 지역적 특성을 담은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참여예술 창작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법정문화도시

5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지방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두고 각 지자체의 노력이 활발하다.

올해 말경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최종 발표될 법정문화도시 지정의 대열 속에서 밀양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차후 본보는 올해의 마무리 시점에서 밀양시문화도시센터 찾아가 그들의 땀과 노력의 흔적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기로 한다.

아리랑 도시 밀양 ‘문화도시’를 꿈꾼다

[밀양신문 2020-10-27]

밀양시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첫 관문인 예비도시 승인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서면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제3차 문화도시 지정 예비도시 승인에는 작년보다 16개가 늘어난 41개 도시가 신청함으로써, 문체부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서면심의 외에 온라인 인터뷰까지 추가로 진행했다. 그 결과 밀양시를 포함한 25개 도시가 현장 검토 대상지로 선정됨으로써 밀양시는 문화도시 지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밀양시는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회복, 역동, 참여, 공유’를 문화도시 조성계획서에 담아 지난 7월 문체부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밀양 문화도시는 ‘사람 중심’의 사업으로, ‘문화로 지역을 재생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밀양답게 나아가기’라는 전략방향을 가지고 5개 영역의 16개 세부사업에 2026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도시 조성방향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한 문체부의 문화도시 추진 정책의 취지에 따라 밀양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아래로부터의 시민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밀양시는 밀양시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진행의 경험과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2년차 진행을 바탕으로 시민 라운드테이블 운영, 문화도시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도시 조성방향 및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시민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시민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역량을 강화시키고, 문화햇살찾기사업을 통해 문화소외지역민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클럽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나서 ‘변화된 미래와 문화도시 밀양’을 목표로 함께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시민워크숍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시민워크숍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10회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의견 도출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서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 전문가 강의와 회차별 의제에 대한 조별 토론회과정에서 모아진 의견들은 다시 참여자들에게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조성 계획서에 담았다.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워킹그룹과의 상시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진행방향 논의 과정을 숙고해 나가고 있다. 워킹그룹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하며 같은 문화활동가의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지역문화기획자로 성장해 가고 있다.



◎문화기획자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발전기반을 만들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핵심인력으로서 지역문화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문화기획자의 발굴·양성을 통해 자생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내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주체와 네트워크 모임 및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도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MY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은 시민문화기획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화기획 분야의 시민 역량 강화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시민들과 센터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 문화적으로 개선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 센터는 문화기획 이론 및 실무교육, 분야별 전문 멘토와의 연계를 통한 실습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문화기획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MY문화기획자협회’ 결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을 문화예술적 접근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문화기획자 수료생들은 문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문화도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민공모사업’의 ‘주체로, 지역의 문화자원 및 원형을 활용하여 문화 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읍·면지역 ‘문화햇살찾기’의 ‘기획자’로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해 나감과 동시에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클럽 네트워크’의 ‘활동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문화기획자에게 운영비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돕고 있다.

◎시민공모사업

문화도시센터의 사업들은 문화기획자 수료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10개 팀이 다양한 분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모사업은 문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문화도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민제감형 문화콘텐츠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주도형 문화도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함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문화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공모사업은 밀양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시민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공동체활동화, 시민문화활동 참여 확대, 지역특화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증진, 문화향유기회 증대, 비대면 문화예술사업 등 평소에 시민들이 해보고 싶었던 창의적인 문화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햇살사업

문화햇살사업은 지역 주민과 워킹그룹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문화자원 및 원형을 활용하여 문화 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 및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11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개 면에 지원하고 있는데 북북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초동면이 지역축제, 마을축제 조형물제작, 주민문화예술교육, 마을 아카이빙, 풍물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햇살사업은 지역문화단체(워킹그룹)가 읍면 주민들과 함께 해당 읍면의 문화원형을 발굴해 콘텐츠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1개 읍면에 가졌으며 선발과 5개 면과 워킹그룹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에 예정된 시민문화페스타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과 워킹그룹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문화사업을 모색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차별화 된 지역만의 문화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의 문화클럽(동아리) 활동이 소극적인 형태의 개인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문화클럽 네트워크는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해 나감과 동시에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민 스스로 문화활동을 통해 밀양의 특성이 묻어 있는 동아리 육성하고 단순 문화클럽 지원이 아닌 지원 받은 동아리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재능을 펼치고 있다. 문화클럽 네트워크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재능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밀양형 동아리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 대상 결과 발표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협력망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단위 문화클럽의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동아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의와 활용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문화도시 청년 해커톤 대회

문화도시 청년 해커톤 대회는 밀양의 청년들이 밀양의 문화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도출하기 위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이다. 팀원 간 협업과 지역 문화기획자들의 멘토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였으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청년 해커톤에서 제안한 기획안을 공유,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심사를 통해 창의성·실현가능성·완성도·대중성·구성 및 기획력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의 아이디어 창출, 기획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문화도시를 향하여

10월에 접어들면서 문화도시 프로젝트 성과가 공연과 전시 형태의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 시민공모사업 “구절초, 술향을 머금다”는 10월 18일에 삼문동 송림 구절초밭에서 시민들과 함께 가을축제를 펼쳤으며, “나발레라”는 청학마실에서 회원들의 캘리그래피 작품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시한다. 문화햇살찾기사업 북북면에서는 ‘위양지 달 띄워라’라는 주제로 마을주민들과 위양지 환경축제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에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11월 13일과 14일에는 최종 결과 발표의 자리인 시민문화페스타가 진행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시민의 삶 속에 문화가 확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며,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쇠퇴 위기의 도시에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새롭게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차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11월 3일 현장 검토와 12월 종합발표회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도시로 지정한다. 예비도시로 지정되면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지정, 5년간 국비 100억 원 을 지원 받는다.

2020 문화를 담다.

밀양시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

2018년 밀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 밀양시 문화도시센터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왔다. 향후 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문화도시사업’ 선정으로 가는 준비단계로 ‘밀양다움’의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활용과 밀양문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로 연계되고 있다. 올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위한 ‘문화도시 시민워크숍’을 매주 진행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청년해커톤대회, 시민공모사업, 햇문화발전소 사업,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

문화특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 (2018~2020)

체계적 단계를 거쳐
문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밀양





1 문화도시 시민워크숍

시민의 참여와 역량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자!

시민워크숍은 문화도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사업 이후 지속가
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과 예술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있
다.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주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단순 참여
를 넘어 문화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시민으로 양성하
기 위하여 전문가 강의를 매회 진행하며 이후 라운드테이블로 통
해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하여 문화도시사업에 담는 과정을 진행
하고 있다. 시민들이 시민워크숍에 참여하는 선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문화도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형성하고 문화도시사업의 실
제적으로 총괄 집행하는 밀양시문화도시센터가 사업 전반을 수행
하고 관리하고 있다.

예술가, 시민활동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워크숍을 진행하며
문화사업 관련 시민의 의견을 가장 아랫단계에서부터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시민거버넌스 및 문화도시에 관심 있
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시
민이 성장하고 문화도시 밀양이 성장하고 있다.



2 청년문화 해커톤(청년작당)

우리의 생각들, 문화도시로 향한다!

문화도시 청년 해커톤 대화는 밀양의 청년들이 밀양의 문화에 대
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도출하기 위
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이다. 팀원 간 협업과 지역 문화기획자들의
멘토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였으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
는 성공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청년 해커톤에서 제안한 기획안을 공유,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 심
사를 통해 창의성·실현가능성·완성도·대중성·구성 및 기획력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해커톤이란 해킹
(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긴 시
간의 아이디어 창출, 기획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③ 시민공모사업

10개 시민동아리 참여! 시민문화 경연의 장으로

시민공모사업은 문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문화도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10개 팀이 다양한 분야로 참여하고 있다. 시민제감형 문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주도형 문화도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문화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였다.

시민공모사업은 밀양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시민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공동체활성화, 시민문화활동 참여 확대, 지역특화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증진, 문화향유기회 증대, 비대면 문화예술사업 등 평소에 시민들이 해보고 싶었던 창의적인 문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④ 문화햇살 사업

문화소외지역 5개 읍면, 찾아가는 햇살문화 사업

문화햇살사업은 지역 주민과 워킹그룹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문화자원 및 원형을 활용하여 문화 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 및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11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개 면에 지원하고 있는데 부북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초동면이 지역축제, 마을축제 조형물제작, 주민문화예술교육, 마을 아카이빙, 장구병창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햇살사업은 지역문화단체(워킹그룹)가 읍면 주민들과 함께 해당 읍면의 문화원형을 발굴해 콘텐츠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1개 읍면에 가졌으며 선발과 5개 면과 워킹그룹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 예정된 시민문화페스타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과 워킹그룹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문화사업을 모색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커뮤니터를 형성하여 차별화 된 지역만의 문화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5 지역문화네트워크 - 우수동아리지원사업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우수 문화프로그램 확대사업



문화클럽 네트워킹 사업은 지역의 문화클럽(동아리) 활동이 소극적인 형태의 개인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문화클럽 네트워킹은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해 나감과 동시에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민 스스로 문화활동을 통해 밀양의 특성이 묻어 있는 동아리 육성하고 단순 문화클럽 지원이 아닌 지원 받은 동아리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재능을 펼치고 있다. 문화클럽 네트워킹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재능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밀양형 동아리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 대상 결과 발표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협력망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단위 문화클럽의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동아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의와 활용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사업 후기

2020년 밀양시문화도시센터 사업을 진행하며..

문화도시센터는 올 한 해도 문화기획자의 발굴·양성을 통해 자생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내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주체와 네트워크 모임 및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해 왔다.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MY문화기획자 과정은 시민 문화기획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화기획 분야의 시민 역량 강화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시민들과 센터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 문화적으로 개선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 센터는 문화기획 이론 및 실무교육, 분야별 전문 멘토와의 연계를 통한 실습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문화기획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MY문화기획자협회' 결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을 문화예술적 접근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문화기획자 수료생들은 문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문화도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민공모사업'의 주제로 지역의 문화자원 및 원형을 활용하여 문화 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읍·면지역 '문화햇살찾기'의 '기획자'로,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해 나감과 동시에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클럽 네트워킹'의 '활동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문화기획자에게 운영비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돕고 있다.

문화도시센터의 사업들은 문화기획자 수료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로 참여하고 있는 센터 사업은 문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문화도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민체감형 문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주도형 문화도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문화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키트 사업도 진행하였다.



밀양 시민들은 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공동체활성화, 시민문화활동 참여 확대, 지역특화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증진 문화향유기회 증대 비대면 문화예술사업 등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시민의 삶 속에 문화가 확산되는 사업이다. 밀양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힘으로 쇠퇴 위기의 도시에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새롭게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